

수도권 규제완화 반발 지방 달래기 정부 '땀질 정책' 난무

당정협의 안되고 지방에 실익 없어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에 대한 비수도권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와 여당이 지방에 실익이 없는 지방정책을 마구잡이식으로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책 대부분이 당정협의도 거치지 않거나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이어서 지방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땀질 처방식 정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3면>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 발표 이후 비수도권의 반발이 폭발하자 수도권 추가 세입 지방 이전, 수도권 개발 이익금 지방 이전, 지방 소비세 및 소득세 신설 검토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지방발전 대책과 관련 "내년 상반기에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수도권의 추가 세입을 지방으로 돌리는 방안을 만들어(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

명박 대통령도 지난 3일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를 만나 "수도권 규제 합리화로 인한 개발이익을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한 추가 세입과 개발 이익금의 지방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에 따르면 수도권에 5조원이 추가로 투자될 경우, 개발이익은 법인세 660억원과 소득세 850억원 등 연간 총 1천510억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에 따른 수익을 전액 지방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은 비수도권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푼돈 나눠주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지난 4일 제시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신설 추진도 오히려 수도권의 집중화를 부르고 비수도권 지방자치

단체간의 격차를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다. 즉 경제 규모가 작은 호남지역의 경우,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가 도입될 경우 타 지역에 비해 세수가 줄어들면서 경제적 낙후가 오히려 심화될 수 있는 것이다. 또 경제적 규모가 큰 수도권 지자체에 지방소비세와 소득세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 세제 도입도 관련 법안을 이번 회기내에 처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추가 당정협의를 거쳐 내년에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정작 시행까지는 최소 2년이상 걸린다는 문제도 있다. 지난 5일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제시한 지방금융증심도시 건설도 구체성이 없는 증축적인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여권이 최근 거론하고 있는 대책은 지방의 연진(산업)과 연료(일자리)를 빼앗고 도색(수도권 규제 완화 이익 지방 이전)을 해준다는 격"이라며 "전혀적인 사망발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낙안읍성 겨울 채비 임동(立冬)을 하루 앞둔 6일 순천시 낙안읍성 민속마을 주민들이 초가 지붕에 이엉을 새로 얹는 등 겨울나기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위정각기자 jrwi@kwangju.co.kr

오바마, 정권인수팀 인선 착수

재무장관 서머스 검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첫날인 5일 곧바로 정권인수팀 및 차기 백악관 참모 인선에 착수했다. 오바마 당선인은 '경제 살리기'에 최우선 비중을 두면서 정권인수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4·5면> 오바마 당선인은 이날 3명의 공동 정권인수준비위원장으로 빌 클린턴 행정부 출신인 존 포데스타 전 백악관 비서실장, 지역구인 시카고 인맥의 대외적인 발레리 자렛, 상원의원 실 수석보좌관 출신인 피트 루즈를 임명했다. 오바마 당선인은 또 주말에 차기 대통령으로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정권인수계획 및 향후 국정운영에 대한 청사진을 밝힐 예정이다. 오바마 당선인은 우선 인선 대상으로 재무장관과 백악관 비서실장을 검토 중이다. 재무장관은 미국이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점에서,

비서실장은 재무장관과 내각 진용자기를 협의하기 위해서다. 미 언론이 재무장관으로 거론하는 인사는 로런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 서머스 전 장관이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재무장관직을 수행해 전문직이 풍부함에도 시장(market) 친화적인 인물로서 오바마 당선인이 현재와 같은 시장위기에 적합한 인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티모시 가이스너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오르내리는 것으로 오바마 당선인의 측근들은 밝혔다. 백악관 비서실장 자리는 오바마 당선인과 같은 일리노이 출신 하원의원인 램 이매뉴얼 하원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CNN, NBC 등 미국 방송들은 오바마 당선인이 약 1억3천만명에 이르는 전체 투표 참가자들로부터 역대 최다인 6천325만표(약 52%)를 얻는 데 성공, 5천590만표(약 46%)를 얻은 매케인 후보를 제쳤다고 보도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연합뉴스

비수도권 비상모임 결성 '대항 입법' 추진

국회의원 80여명 참여

정부의 수도권 규제 철폐 방침을 저지하기 위해 비수도권 국회의원 80

여명이 6일 연대 모임을 결성, 행동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이들 국회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갖고 연대 모임인 '수도권규제 철폐반대 국회의원 비상모임'(이하 비상모임)으로 명명하는 한편 이낙연(민주당), 박상돈(자유선진당), 권영길(민주노동당) 의원을 공동대표로 선출했다. 한나라당 몫의 공동대표는 추후 선출하기로 했다. 비상모임은 이날 즉각 결의문을 통해 "아사 직전의 지방의 현실을 외면한 채 이미 포화상태에 직면한 수도권의 규제를 철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수도권 규제 철폐를 골자로 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 철폐 ▲지역주민에게 사회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즉각 추진 등을 정

부에 요구했다. 비상모임은 또 정부의 방침을 저지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에 돌입했다. 비상모임이 고려하는 저지 방안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 철폐를 위한 법률안의 통과 저지 또는 수정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정부 방침 무력화와 지방 균형 발전 추구 ▲헌법 소원 제기 ▲장외투쟁 등이다. 하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가 지방발전 대책을 조만간 내놓기로 한 만큼 행동에 앞서 일단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집단 퇴장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 권영길 공동대표는 "비상모임은 수도권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고 헌법정신을 지키기 위한 위인들의 모임"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중고생 겨울방학 학습특강!!!
개강: 2008년 12월 30일(화)
2면 1일 기출사, Power 강사진
서한필목차 초중 일일실용회!!!
2008. 11. 19(일) 오후2시 (달마중학교 2학년부)
예약할 수!!!
호남한샘학원
교육상담: (061) 332-1111
총재: 박지은 www.hosam.com

社告
광주일보 신춘문예 공모
단편소설·시·동화... 12월 15일 마감
광주일보사가 한국 문단의 내일을 이끌어갈 신인들의 작품을 공모합니다. 광주일보 신춘문예에는 광주일보 창간 이듬해인 1953년부터 전통과 권위의 응모문이 되었으며 배출된 작가들은 한국문단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문학경쟁이 살아있는 작가 지망생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부문 및 상금
- 단편소설: 200자 원고지 80매 안팎(당선작 1편, 고료 300만원)
- 시: 3~5편(당선작 1편, 고료 100만원)
- 동화: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당선작 1편, 고료 100만원)
■ 접수마감: 2008년 12월 15일(15일자 소인 유효)
■ 보내실 곳: 우편번호 501-711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사 편집국 문화생활부(전화: 062-2200-689)
■ 기타
- 팩스나 이메일 원고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 원고 접수 시 연락가능한 전화번호·주소·이메일 주소·인물사진을 함께 보내주시시오.
- 응모작품은 발표된 적이 없는 창작품이어야 하며, 다른 곳에 중복 입선된 원고나 기성 작품의 표절일 경우 당선시 취소됩니다.
- 당선작은 2009년 1월 1일자 광주일보 지면에 발표합니다.

무등중1회 홈커밍데이
· 일시: 2008. 11. 15(토) 오후 3시
· 장소: 모교교정
· 행사
- 1부: 교정에서 친구들과 손잡기 외
- 2부: 스승님들과 만남(연회)
여러 동창 벗님을 함께 합시다.
무등중 1회 총창회 cafe.daum.net/mudeung1
(연락: 임성래 016-731-0061)

아모레퍼시픽이 꿈꾸던 그 아리따움이 태어납니다.
ARITAUM
www.aritaum.com